일체 만법이 바로 여러분 한 주먹 안에 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라고 꼬리표를 해서 붙여 놨습니까? 못살 것이라고 꼬리표를 해서 붙여 놨습니까? 못사는 것도 한 철 잘사는 것도 한 철, 높은 것도 한 철 낮은 것도 한 철입니다.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낮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기 때문에 높다는 그런 말을 듣지, 얕은 산이 없으면 어떻게 높은 산이라는 이름을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은 것도 높은 것도 평등하니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 나가는 이 공부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다 맡겨 놓는 겁니다. 어저께도 과거, 아까 잠시 전만 하더라도 과거이고 내일도 미래, 이따가도 미래입니다. 모든 건 다 거기다가 맡겨 놓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이 의사가 돼서 병을 고치고 체험을 하고…. 야!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두 번 해 보고, 세 번 해 보고 이렇게 자꾸자꾸 해 보다 보면 그때는 능히 당당해질 수 있고 이젠 죽음도 겁 안 난다고 할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죽음도 겁 안 난다는 거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겁이 안 납니까? 그땐 운전이 아주 능숙해져서 자기 몸뚱이 끌고 가는 거는, 차 끌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이 소리와 똑같죠.

질문자1(남) 제가 그전부터 천수경을 아침저녁으로 독송을 해 왔습니다만 큰스님 법문을 듣고 집에 가서 천수경을 독송하는데, 끝자리에 "나무상주시방불, 시방법, 시방승" 할 때요, 이 "나무" 할 때 스님이 말씀하신 '내 몸뚱이나 내 의식이나 전부 놓는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 의식으로 나타난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 같고,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이런 것이 법이고, 내가 이 우주에 속해 있는 것이 승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큰스님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아까 내가 아주 간편하게 말씀드렸죠? 생각 내기 이전이 '나무불'이고, '나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심의 평등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평등공법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무법'이라는 것은 큰 천체의 법이 그대로, 한생각이 그냥 법이라는 얘깁니다. 그게 나무법입니다. 나무는 천체를 말합니다. '나무승' 하면 이 몸뚱이가 수없이 끝없이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저 나무들이 가을에 낙엽이 지는 대로 지고는 또 봄에 새잎이 피고, 또 지고 또 피고 또 지고 또 피니까 '나무승'입니다.

그러니 마음 내기 이전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그것이 바로 어마어마하고 끝 간 데 없는 우리 살림살이인데 그것이 그렇게 묘하다는 얘기죠. 우리들 전체가 이래 봬도 지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주의 주인일 수도 있는 거지요. 부처님께서도 우주의 전체 삼천대천세계를 요리를 만들어서 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보여 주시고, 모든 것을 서로서로 이어 주셔서 전체를 공법으로 해결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오백(五百) 일산(日傘)을 한데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삼천대천세계를 그냥 전부 요리를 만들어서 대천세계의 모든 중생들한테도 한꺼번에 모든 걸 보여 주시고는 깨달은 사람, 그 일산을 바친 사람들한테 신등궁 안에서 천체를 보이고 알게끔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그릇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아 줄 수 있지 그릇이 없다면 담아 줄 수도 없죠. 여러분의 그릇대로 담아지는 거지 그릇이 없다면 또 담을 수도 없는 거구요. 그러니 그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을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체 '주인공' 하면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일체가 포괄돼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자체 그대로를 말하죠. 불법승 자체가 그대로 하나로 돌아가는데 일심조차도 언어가 붙지 않느니라 했거든요, 일심이라는 자체도.

달마 대사가 처음에 동쪽으로 오시는데 큰 구렁이가 길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구렁이가 사람들을 해칠 듯해서 구렁이 속에 들어가서는 멀찌감치 갖다 놓고는 돌아오니까 자기 잘생긴 몸뚱이 집은 없어지고 아주 그냥 못생긴 집 하나가 남아 있더라지 않습니까? 허허허…. 그 소리도 참, 잘 따지고 본다면요, 그 도둑놈같이 생긴 그 몸뚱이나 이쁘게 잘생긴 그 몸뚱이나 둘이 아닌데…. 그러면 도둑놈도 달마 대사 못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집을 훔쳐가고 자기 집을 남겨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보면요, 그게 달마 대사가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쓴 말이지 진짜 딴 놈이 자기 집을 훔쳐 간 게 아닙니다. 자기 집은 자기 집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한 찰나에 저 집에 들어가도 저 집이 바로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모습도 많거니와 천차만별로 된 그 의식들이 다 천백억 화신으로다가 화한다면…, 그래서 "삼십이상(三十二相)이 구족하면 삼십이응신(三十二應身)으로서 구족하다. 삼십이응신이 구족하다면 천백억화신이 들고 나면서 일체 중생들을 다 건진다. 위로는 일체제불과 다 한자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다." 하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 만 명이, 아니 20만 명이 저한테 천차만별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다고 합시다. 일단 여러분한테 "가져온 문제를 재료로 삼아 연구해서 전부 실험하고 체험하십시오." 이렇게 말은 했어도 그 갖가지 용도대로 안 보이는 데서의 50%는 항상 충당이 되도록 합니다. 그럼 충당할 때는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이 가져오는 용도에 따라서 실험하는 대로, 나는 항상 자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 아픈 사람한테 달려갔는데 그 사람이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용도대로 20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20만 명이라고 요것조것 따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공, 너나 나나 둘이 아닌 도리가 바로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부처지, 어떤 것이 돼 가지고 나라고 한다면 부처일 수가 있습니까, 네? 부처는 어떤 국한된, 어떤 부분적 개별적 이름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나툴 수 있을 때 바로 열반입니다. 나투는 그 자체가 바로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그것 됐다, 환경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그냥 돼서 돌아갈 때에, 이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갈 때에 그게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무(無)" 했었고, '주인공'이라고 했고, '불(佛)'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쪽으로 온 까닭도 서쪽으로 간 까닭도,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네가 똥 마려우면 똥 누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먹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써 그냥 거길 믿고 '아! 여기서 나를 이끌어 가고 생각을 내게 하는 거다. 나쁘게 생각이 나오는 것은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거기 놓으면 그것도 녹아져 버린다.' 하고 믿고 거기 놓으세요.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잘못으로 돌리고, 모두가 내가 하는 걸로 돌리고 내가 안 했어도 나에게 온 것은 내 탓으로 돌리고요. 모든 것은 내 주인공이 하는 거지 남의 탓 할 게 없죠. 그렇게 돌아가야만 여러분이 일 년이 못 가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모른다면, 바로 어저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지금 돌아가는 일도 모르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봐야 뭘 하죠, 들어야 뭘 하죠, 또 먹어 봐야 맛을 알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항상 하는 소리지만, 천둥이 치는데도 귀머거리가 천둥이 어디 있느냐고 부득부득 우기는 거예요. 그것이 천둥 탓이겠습니까? 귀머거리 탓이지요. 그처럼 귀머거리가 언제 천둥 쳤느냐면서 부득부득 우기는 거와 같이 하지 마시고, 석연치 않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허공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형상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 고깃덩어리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장본인인 주인공을 믿으라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 여러분 주먹 안에 들어 있어요. 일체 만법은 여러분 주먹 안에 들어 있으니 바로 그 한 주먹에 들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주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세상에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은 법이 있다는데 그 법이 어떠한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암 스님께서 아무 소리 없이 손 하나 쳐들어서 가리키곤, 내려 가리키고선 주먹 하나를 척 내보이더니 쾅! 치고는 그냥 가사 장삼 자락이 휙 날리도록 돌아서서 쏜살같이 가시더군요. 야! 참, 그것이 이 세상 모두를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면서 평화롭게 평등화하는 이 도리를 그대로 그냥 찍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부처님 계신 데 가 보세요. '여긴 어떡하고 있나 보자. 여긴 어떡하고 있지? 어, 저렇게 하고 있구먼.' 하하하….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엎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쳐들고 있지요? 그래서 일산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여러분의 참자기의 주장자를 받쳤던 거지요. 오백이라 그러는 것도 오(五) 자를 넣은 거는 천체를 말하기 위해서고, 백(百)이라 그러는 것은 전부 평등한 거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산이야, 일산! 그래서 그걸 갖다 받치는 반면에 우리가 있었듯이, 이렇게 들면 전체가 들리고 이렇게 엎으면 전체를 덮고, 한번 굴리면 전체가 굴러간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처님은 한 손을 둥글게 해 놓고는 손가락 하나 척 쳐들고 있는데, 바로 대권을 쥔 그 인장을 들었다 할 수도 있지만 법자를 든 거죠, 법자. 즉 말하자면 대권의 법자. 한 손은 둥글게 이렇게 하고 한 손은 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대권입니다. 이 세상천지 삼라만상 대천세계 천체가 그분의 대권이라 이겁니다. 깨달으면 그분만이 아니라 만 명이 깨달았어도 그건 한 분입니다. 한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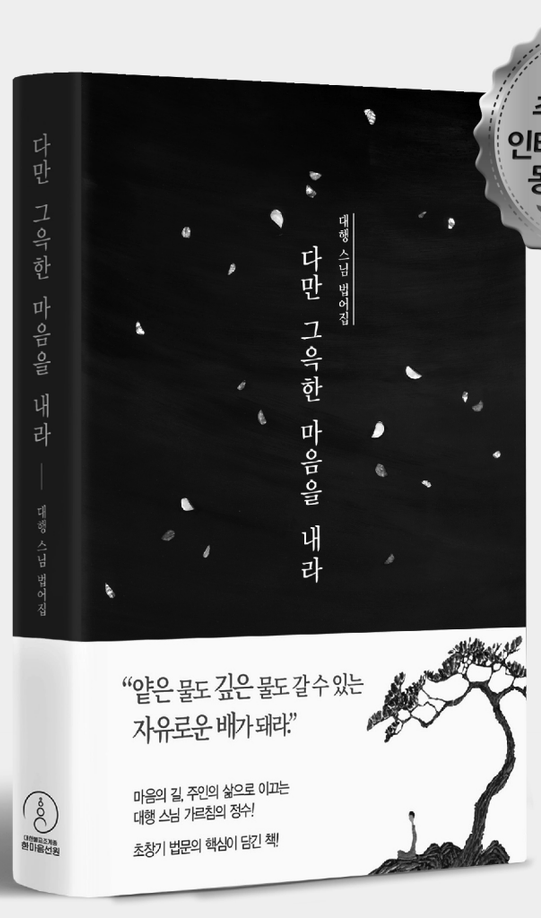
보십시오. 요 몸뚱이 하나 가지고도 헤아릴 수 없이 그 의식이 많고 모습이 많은데, 어떤 것이 움죽거릴 때 내가 움죽거렸고 어떤 것이 움죽거릴 때 내가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몸뚱이 속에서 지금 움죽거리고 있는데 말이죠. 아니, 여러분이 말이에요. 하하하…. 간장 공장은 댁의 공장이 아닙니까? 위 공장도 댁의 공장이고 심장 공장도 댁의 공장이에요. 그리고 방광 공장, 콩팥 공장, 대장 공장, 소장 공장 전부 댁의 것이지 다른 사람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본다면 어떤 공장장은 내 공장장이고 어떤 공장장은 남의 공장장입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한마음의 공장장입니다. 그러니 그 공장장이 여러 가지가 돌아가는 걸 체험하고 실험한다면 하나하나 거듭거듭 물리가 터지는 거죠. 자기의 노고가 없이 어떻게 이거를 터득합니까?

"너! '무(無)' 자 화두를 가져." 이러는데, 누가 줘서 화두를 받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온 게 태초예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기가 나온 그날이 바로 태초예요. 또 그날에 나왔기 때문에 나온 그 자체가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화두예요.

지금 세상에 '이게 뭣고?' 해야겠습니까? 뭐긴 뭡니까? 자기지요. 자기가 어떤 거냐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 진짜 공부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대의정이 나는 거지요. 둘이 아닌 도리를 알려고 자꾸 놓고 가니까 의정도 대의정이 나지요. 무의 세계의 의정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의정을 만들어서, 누가 주어서 의정을 갖는다는 건 그건 빈 맷돌 돌아가는 형국이다 이겁니다. 물건이 갈아져 나와야 먹지요.

여러분이 이 마음 도리를 아신다면
어디다 세워 놔도 당당하고 싱긋이 웃으실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보면 보는 대로 놓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법문은 1990년 8월 2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